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8호 2004년 2월 12 (목)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중소벤처기업계, 혁신에 나섰다



한편, 연찬회 참석자들은 최근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 조류관련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참석자 전원이 닭고기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계는 변화와 혁신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1박 2일간 200여명의 민관 대표자들이 천안에 있는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에 모여 「중소벤처기업계 연찬회」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결의하는 한편,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산업공동화 대책, 노사관계 개선대책, 대·중소기업 협력강화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기살리기 방안 등에 대하여 분임토의를 통해 그 대책을 집중 토론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중기청 간부, 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산업자원부장관, 김병준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 연구원 조영삼박사 등 관계 및 연구계 주요 인사와 함께 유한김벌리 문국현 대표, 및 PMC프로덕션의 송승환 대표를 초빙하여 “ 혁신주도형 산업정책”, “참여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 그리고 “경영혁신과 뉴패러다임”, “난타, 기획에서 세계진출까지의 성공스토리” 등의 강연이 있었다.

연찬회를 통하여 중기청 간부들은 일 잘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으로, 중기협중앙회 등 지원기관들은 중소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 기획관리관실  
혁신담당관실  
(042-481-4356)

## 벤처 M&A 지원 본격 착수

지난해 벤처업계는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진 해로 평가되고, 금년도는 벤처기업의 질적고도화를 위한 M&A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부실징후기업 및 비주력사업·IT산업 구조조정, 벤처 CBO 만기도래 등 본격적인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투자수요 중심의 M&A가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준 강화 등으로 성장모델을 찾지 못한 벤처기업도 구조조정 및 생존전략 차원에서 M&A를 통한 새로운 활로 모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재도약과 벤처 투자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M&A시장의 정착이 필요

하다고 보고, 우선 지난해 벤처기업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1/4분기중 하위법령 등 지원제도를 조속히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M&A펀드 추가결성(300억원), M&A 중개비용 지원(3억원), 관련 D/B 및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M&A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기업가치 공인평가기관 지정 등 공정한 평가체제를 갖추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M&A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M&A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기관을 통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에 편승한 불공정·편법적 M&A를 예방하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1분기 중 하위법령 정비 및 M&A에 대한 세제지원체제가 갖추어질 경우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금년 4월부터는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업계 자율적인 주식교환·합병·영업 양수도가 어느 해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창업·성장지원 등 직접 지원에만 의존하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의 진입-성장-퇴출이 원활한 벤처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7)

## 중소협력 모범대기업으로 삼성전자 선정, 감사패 전달



비롯, 협력회사에 ERP시스템을 도입하고 28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및 공동개발·기술이전을 위해 898억을 투자하였고,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72개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중기청은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부회장)를 직접 방문해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삼성전자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에는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장홍순 벤처기업협회장, 이영남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1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기업에 대한 협력·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실적이 가장 우수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 모범 대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번에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협력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IT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총 40억원 규모의 정보화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00여개사 12,000명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및 3D-CAD 등의 교육, 협력회사 6시그마를 위해 약 200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선진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삼성전자(주)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협력회사 350개사를 대상으로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7)

## 『생산현장 작업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중기청은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의 열, 분진, 냄새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지원규모는 2003년도보다 23억원(13.3%)이 늘어난 197억원이며 금년도부터는 지원대상도 다양화 하여 기존의 컨소시엄사업 이외에 R&D 능력이 있는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과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2004. 2. 6일부터 2004년 2. 28일(23 일간)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과제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의 과제개발의 타당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중

컨소시엄사업과 중장기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며

장비개발에 성공한 경우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30%(컨소시엄사업 : 정액 기술료6%, 경상기술료 24%)를 5년동안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392)



## '04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 본격 시행

중기청은 기술, 경영,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요인을 종합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지도·자문서비스를 실시하는 『2004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을 2월부터 두원공대 등 110여개 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방대학 활용 기술지도사업, 국책 연구기관 연계 기술지도사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으로 세분되며, 기술 및 제품 혁신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25%만 부담하면 대학 및 연구원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대학 활용 기술지도사업』은 정부·대학·기업간 삼각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TRITAS : Triangle of Technology Assistance for SMEs)으로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으로 1,900여개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교수로부터 현장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도비용을 지원하며, 두원공대 등 110여개 대학의 2,000여명의 대학교수와 5,000여명의 이공계열 대학생이 참여하여 이중 약 30%(1,500여명)가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연계 기술지도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 기술 개발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270개 중소기업에 대해 과제당 8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발, 염색 등 지역특화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 수요의 충족을 위해 참여연구기관을 15개

에서 19개로 확대하였다.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알선으로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자, 민간 기술지도사 등을 통해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1,500개 중소기업에 대해 과제당 소요비용의 75%까지 2월부터 연중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설계, 부품제작, 공정개선, 품질검사, 시제품 모형(Mock-up)제작, 디자인 등이며, 다만 경영컨설팅, ISO 시스템 구축 등 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9)